

2023년 3/4분기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2023. 6

창원상공회의소

1. 조사목적

-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창원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 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와 창원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창원지역의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기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기업지원 기관·단체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2.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3. 6. 1. ~ 6. 13. (9일간)
- 분석대상 : 157개 응답업체

(단위 : 매, %)

	규모별		수출, 내수 비중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출위주 기업 (수출 50% 이상)	내수위주 기업 (수출 50% 미만)		
매수	44	113	37	120		
비중	28.0%	72.0%	23.6%	76.4%		
업종별(복수업종 포함)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철강·금속	기타 운송장비	기타
매수	31	38	53	29	15	16
비중	17.0%	20.9%	29.1%	15.9%	8.2%	8.8%

3. 조사내용

- 제조업 체감경기 현 수준 및 향후 전망
- 체감실적 및 전망,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사정
- 기업경영환경 요인

4.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전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응답업체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text{전체 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과 '악화'로 응답한 업체수가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로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2023년 3분기 전망BSI '94.9', 2분기 실적BSI '91.8'

- 자동차, 조선, 철도, 항공 등 운송장비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수익률 악화요인과 공급망 불안정의 상존으로 지역산업 전반에 더딘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항목별 전망BSI, 사업장·공장 가동(99.4), 매출액(94.6), 설비투자(89.3), 공급망 안정성(88.1), 영업이익(82.7)
- 업종별 전망BSI, 기타운송장비(141.7), 운송장비(113.2), 기계장비(97.7) 전기전자(76.9), 철강금속(76.9)

● 응답업체 67.1%, 상반기 실적 목표치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내수시장 경기 부진에 가장 많은 영향

[상반기 목표치 달성 여부]

- 크게 초과 달성(0.6%), 소폭 초과 달성(10.1%), 목표수준 달성(22.2%), 소폭 미달(42.4%), 크게 미달(24.7%)

[상반기 실적에 영향 미친 요인]

- 내수시장 경기(32.9%), 원자재가격(28.5%), 수출시장 경기(27.2%), 고금리 상황(4.4%), 고환율 상황(3.2%), 기타(3.8%)

● 하반기 우려되는 리스크로 36.5%, '고물가·원자재가 지속' 가장 많이 꼽아

- 이어서 내수소비 둔화(19.3%), 수출부진 지속(14.0%), 고금리 상황 지속(10.2%), 원·부자재 수급 차질(7.7%), 고환율 상황 지속(5.6%), 노사갈등 문제(2.5%), 환경·안전 이슈(2.5%)
- 규모별로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고물가·원자재가 지속'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 매출형태별로 수출기업은 '수출부진 지속', 내수기업은 '내수소비 둔화'와 고금리상황 지속'을 꼽은 비중이 높았음.

● 응답업체 36.4%, ‘코로나 이후 중단된 수출품목 있다’

중단 품목은 부품(중간재), 중단 국가는 중국이 가장 높은 비중

- 중단 품목은 ‘부품(중간재)’ 46.9%, ‘완제품(소비재)’ 21.9%,
‘기계·설비’ 15.6%, ‘원자재·소재’ 12.5% 순
- 중단 국가는 ‘중국’ 46.9%, ‘베트남’ 9.4%, ‘인도’ 9.4%, ‘EU’ 6.3%,
‘아세안’ 6.3%, ‘일본’ 3.1%, ‘미국’ 3.1% 순
- 중단 이유는 ‘수출시장 판매 부진’ 31.8%, ‘해외 현지생산으로 대체’ 12.1%,
‘가격면에서 경쟁사에 밀림’ 10.6%, ‘수출국 정부의 규제나
정책’ 9.1%, ‘현지 납품회사 사정’ 7.6%, ‘수익성이 낮아 스
스로 중단’ 7.6%, ‘정확한 이유 모름’ 6.1%, ‘품질·기술면에서
경쟁사에 밀림’ 6.1%

● 응답업체 19.3%, ‘코로나 이후 신규 수출품목 있다’

신규 품목은 부품(중간재), 신규 국가는 아세안과 미국이 가장 높은 비중

- 신규 품목은 ‘부품(중간재)’ 52.9%, ‘완제품(소비재)’ 29.4%,
‘원자재·소재’ 11.8, ‘기계·설비’ 5.9%
- 신규 국가는 ‘아세안’ 26.3%, ‘미국’ 21.1%, ‘EU’ 15.8%, ‘일본’ 15.8%,
‘중국’ 5.3%, ‘인도’ 5.3% 순
- 신규 이유는 ‘수출시장 수요 증가’ 33.3%, ‘기술·품질면에서 우위’ 22.2%,
‘적극적인 해외 영업활동’ 16.7%, ‘국내 납품사의 해외진출’
11.1%, ‘새로운 수출제품 개발’ 11.1%, ‘경쟁사보다 가격면
에서 우위’ 5.6%

Ⅲ

2023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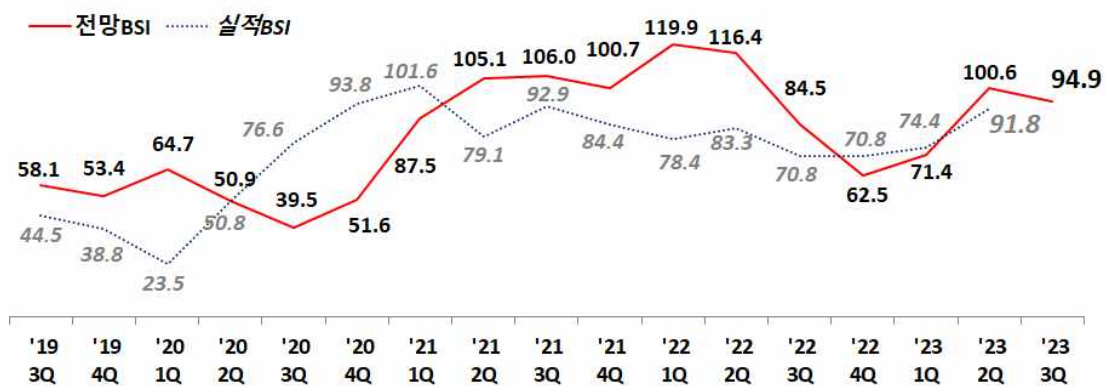
1. 창원 제조업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3년 3분기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전망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94.9'으로 조사되어,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3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내수경기 침체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수익성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창원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과의 교역량도 리오프닝 이후에도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3분기 경기를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23년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한 실적BSI도 기준치를 밑돈 '91.8'로 조사되었음.

창원지역 제조업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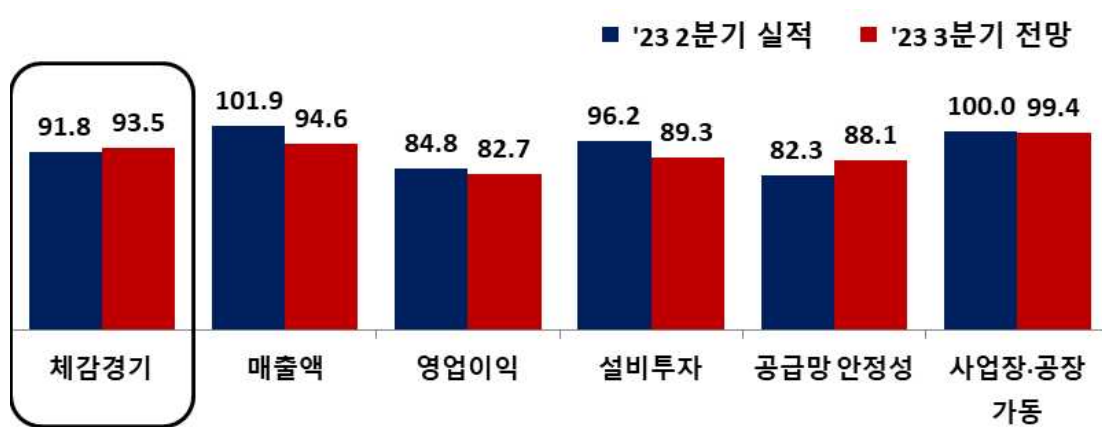
※ 체감경기 지수는 절대적인 실적이 아닌, 앞선 분기와 비교해 상대적 체감정도를 의미하므로 지수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항목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3년 3분기 항목별 전망BSI는 사업장·공장가동(99.4), 매출액(94.6), 설비투자(89.3), 공급망 안정성(88.1), 영업이익(82.7)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를 하회했음.

공장가동과 이에 따른 매출액에 있어서는 약보합으로 조사되었고, 낮은 영업이익 전망과 공급망 불안정성이 설비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항목별 실적 및 전망 BSI



- 2023년 2분기 항목별 실적BSI의 경우 매출액(101.9)과 사업장·공장가동(100.0) 등 생산 부문에서 1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영업이익(84.8)은 1분기보다 더 낮은 실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악재 지속과 주요국의 경기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수익성 확보와 공급망 불안정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설비투자의 감소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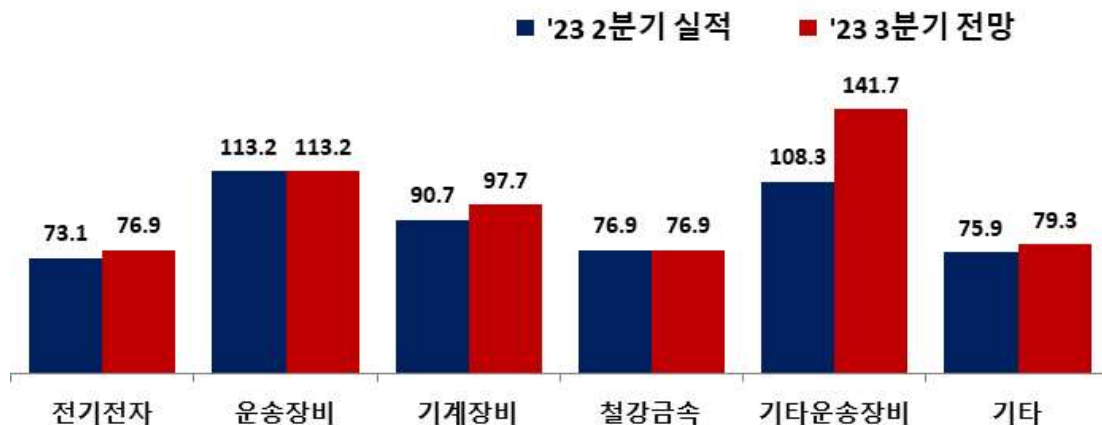
3. 업종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3년 3분기 경기를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업종은 조선·항공·철도 등 기타운송장비제조업(141.7)과 자동차·이륜차 등 운송장비제조업(113.2)임. 반면 기계장비제조업(97.7)과 철강금속제조업(76.9), 전기전자제조업(76.9)은 기준치를 밑돌며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음.

○ 운송장비 및 기타운송장비와 타 제조업종 간 전망 BSI의 명암이 엇갈린 데는 국내 완성차의 내수 및 수출 실적 증가세에 따른 생산 증대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온 조선업의 업황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고, 방위산업 수출과 함께 수주량이 확보된 항공제조업과 국내 입찰에 성공한 철도제조업이 잇달아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임.

반면, 수입 비중이 높은 철강금속제품제조업의 경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기조가 겹쳐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기전자제조업의 경우 국내외 소비심리 악화와 계절적 비수기를 겪고 있어 2023년 3분기에도 부정적 전망을 이어가고 있음.

업종별 실적 및 전망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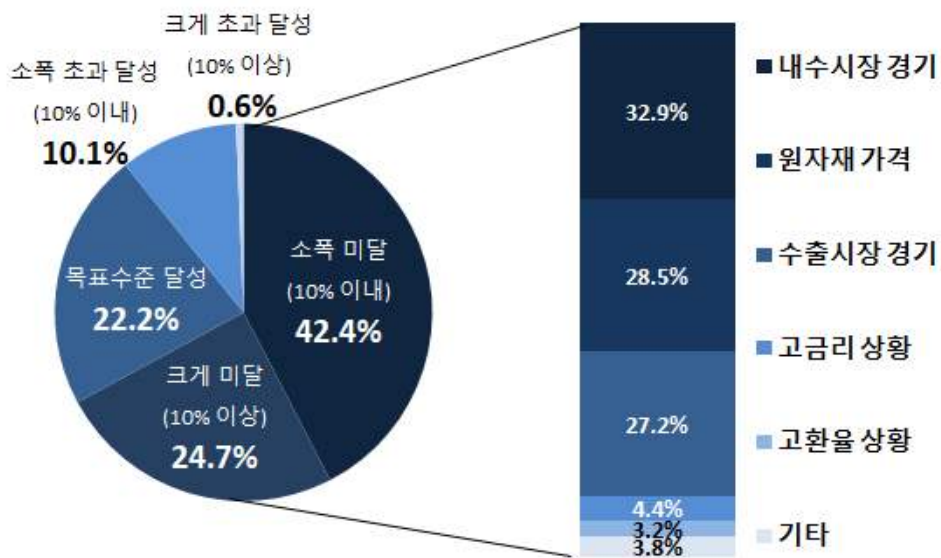


4. 상반기 목표치 달성 여부와 요인

○ 올해 계획한 영업이익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42.4%가 ‘소폭 미달할 것(목표치 대비 10% 미만)’, 24.7%는 ‘크게 미달할 것’으로 답해, 67.1%가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음.

‘목표수준에 달성할 것’으로 답한 비중은 22.2%로 나타났고, 10.1%는 ‘소폭 초과 달성할 것’, 0.6%는 ‘크게 초과 달성할 것’으로 답해 전체 10.7% 만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실적(영업이익) 목표치 달성 여부와 국내외 요인 (n=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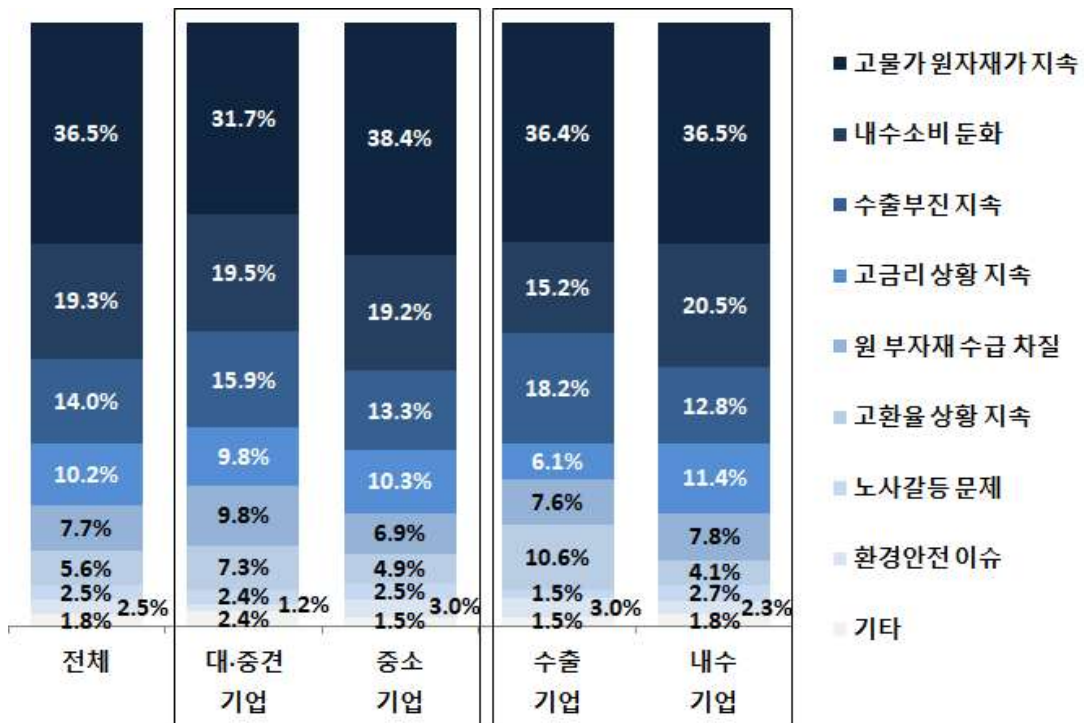
○ 상반기 영업이익 목표치 달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업체의 32.9%가 ‘내수시장 경기’를 꼽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자재 가격’ 28.5%, ‘수출시장 경기’ 27.2%, ‘고금리 상황’ 4.4%, ‘고환율 상황’ 3.2% 순으로 답했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금리인상 등의 생산비 증가(채산성 악화) 보다 내수 및 수출시장 자체의 수요 감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5. 하반기 우려되는 대내외 리스크

- 창원 제조업 3분기 전망 BSI가 기준치를 하회한 가운데, 하반기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대내외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36.5%가 ‘고물가·원자재가 지속’을 꼽아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내수소비 둔화’ 19.3%, ‘수출부진 지속’ 14.0%, ‘고금리 상황 지속’ 10.2%, ‘원·부자재 수급 차질’ 7.7%, ‘고환율 상황 지속’ 5.6%, ‘노사갈등 문제’ 2.5%, ‘환경안전 이슈’ 2.5% 순으로 답했고, 우려 전쟁 등 ‘기타’ 1.8%였음.

하반기 사업실적에 영향을 미칠 위험요인 (n=157)



- 규모별로 중소기업은 대·중견기업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물가·원자재가 지속’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매출형태별로 수출기업은 ‘수출부진 지속’을 내수기업은 ‘내수소비 둔화’와 ‘고금리 상황 지속’으로 응답한 비중이 높았음.

IV

코로나 전·후 비교 수출 품목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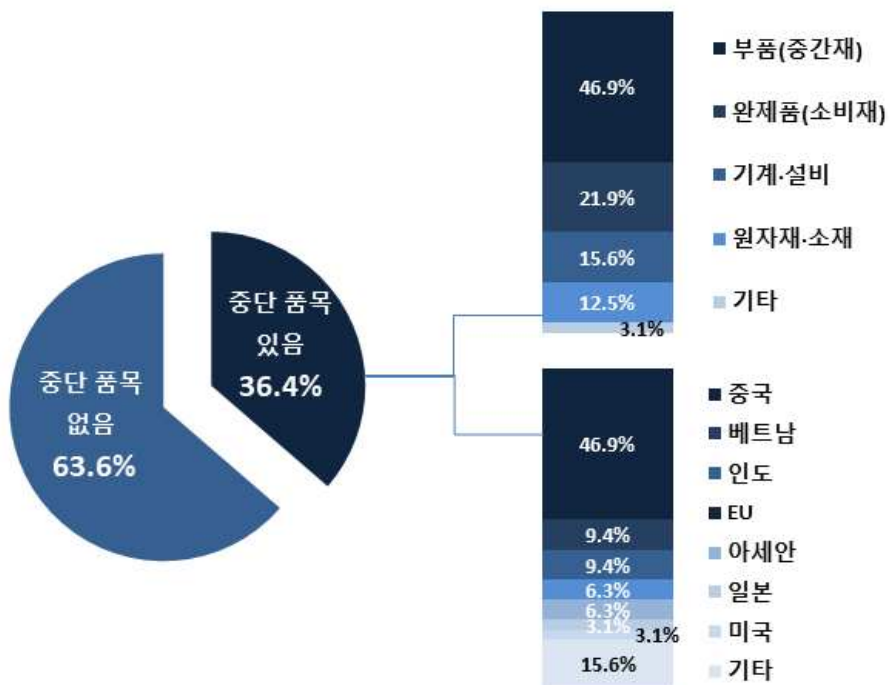
1. 수출 중단 품목 및 국가

○ 설문조사 응답업체 중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88개 사)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중단된 수출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36.4%(32개 사)를 차지했음.

○ 수출이 중단된 품목(가공단계 기준)으로 ‘부품류(중간재)’가 4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완제품(소비재)’ 21.9%, ‘기계·설비’ 15.6%, ‘원자재·소재’ 12.5%, ‘기타’ 3.1% 순으로 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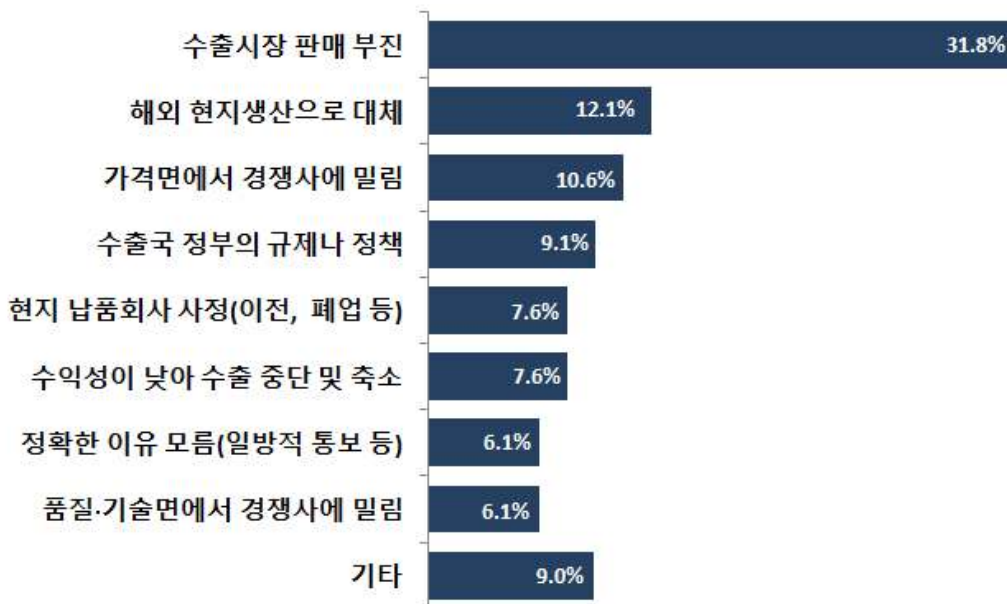
수출이 중단된 품목의 국가로는 ‘중국’이 46.9%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베트남’과 ‘인도’가 각각 9.4%로 뒤를 이었음. 다음으로 ‘EU’와 ‘일본’이 6.3%, ‘미국’ 3.1% 순으로 답했음.

코로나19 이후 수출 중단 품목 및 국가 (n=88)



○ 수출이 중단된 품목에 대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31.8%가 ‘수출시장 판매 부진’을 꼽아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해외 현지생산으로 대체’ 12.1%, ‘가격면에서 경쟁사에 밀림’ 10.6%, ‘수출국 정부의 규제나 정책변화’ 9.1%, ‘현지 납품회사 사정(이전, 폐업 등)’ 7.6%, ‘수익성이 낮아 수출중단’ 7.6%, ‘정확한 이유 모름(일반적 통보 등)’ 6.1%, ‘품질·기술면에서 경쟁사에 밀림’ 6.1% 순으로 답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기타’로 답한 비중도 9.0%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이후 수출 중단 이유 (n=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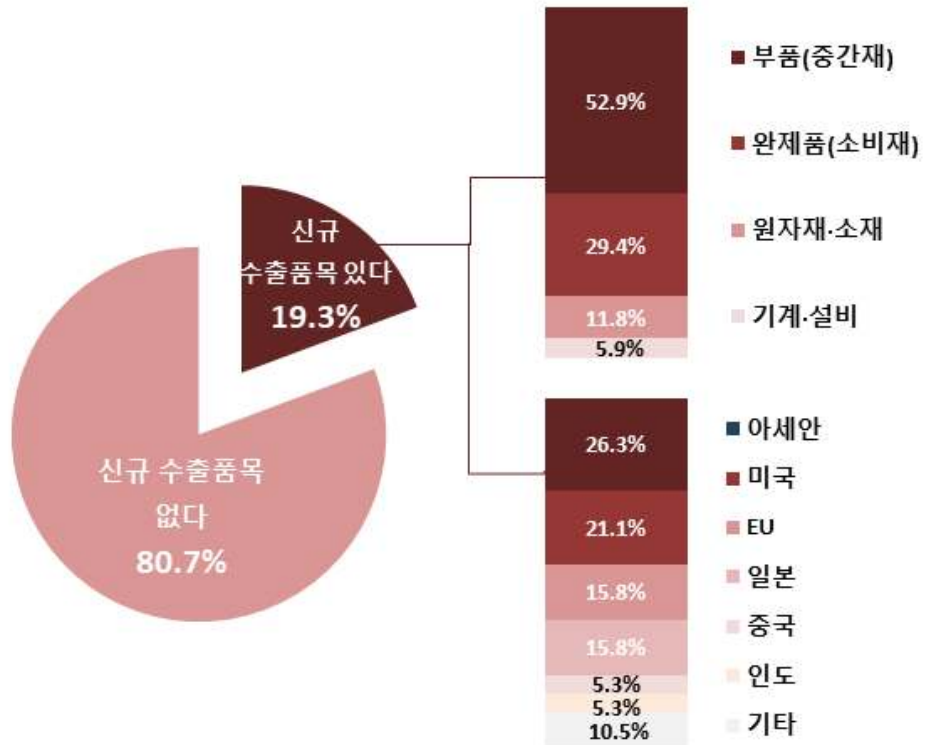
2. 신규 수출 품목 및 국가

○ 설문조사 응답업체 중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88개 사)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신규로 수출이 이루어진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19.3%(17개 사)를 차지했음.

○ 새로이 수출이 이루어진 품목(가공단계 기준)으로 ‘부품류(중간재)’가 5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완제품(소비재)’ 29.4%, ‘원자재·소재’ 11.8%, ‘기계·설비’ 5.9% 순으로 답했음.

신규 수출 품목의 국가(지역)로는 ‘아세안’이 2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 21.1%, ‘EU’ 15.8%, ‘일본’ 15.8%, ‘인도’ 5.3%, ‘중국’ 5.3% 순으로 답했음.

코로나19 이후 신규 수출 품목 및 국가 (n=88)



- 신규 수출이 발생하게 된 이유로 응답업체의 33.3%가 ‘수출시장 수요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기술·품질면에서 우위’ 22.2%, ‘적극적인 해외 영업활동’ 16.7%, ‘국내 납품사의 해외진출’ 11.1%, ‘새로운 수출제품 개발’ 11.1%, ‘경쟁사보다 가격면에서 우위’ 5.6% 순으로 답했음.

